

200일 간의  
일상 속 미술여행

#경남 김해시 #생활미술 특화

책, 사람, 예술이 만나는  
팔판작은도서관



팔판작은도서관을 통한 세상의 빛

팔판작은도서관은 김해 장유의 팔판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팔판의 유래는 우리 마을이 지형적으로 명당자리이며 앞으로 여덟 명의 판서가 배출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앞으로 팔판마을에서는 팔판작은도서관을 통해 여덟 명 이상의 훌륭한 위인이 발굴되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책, 사람, 예술이 만나는 팔판작은도서관

팔판작은도서관은 책을 바탕으로 두고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매개체로 예술을 더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지향하고자 하는 뜻도 잘 표현해 주고 책과 예술이 양쪽에서 우리를 안아주는 듯한 <책, 사람, 예술이 만나는 팔판작은도서관>이라는 문구는 볼 때마다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특화지원사업과 함께한  
팔판작은도서관의 2017  
년은 어떠했나요?**

팔판작은도서관은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2009년 개관 이후, 책과 더불어 벽화, 독후활동, 도서관 환경, 벼룩시장과 가정의 달 행사 등 수많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매개로 미술활동을 많이 활용하곤 했습니다. 예술은 전시장에서나 만나는 고상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도서관에서 소소한 미술작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러다 특화지원사업 공고를 보고 ‘미술을 특화로 도전해보야겠구나!’하는 생각에 번개를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공고 소식을 늦게 알게 되어 시간이 많지 않았으나 운명처럼 해야겠다는 알 수 없는 사명감이 생겼고 며칠 밤을 고민하며 생전 처음 사업계획서를 써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평범한 아줌마로 살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를 용어로 가득한 사업계획서를 쓰자니 말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나름의 신념과 의지로 열과 성을 다해 그동안 꿈꾸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화사업에의 도전은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미술특화의 공간에 대한 계획은 기존의 도서관은 그대로 두고 도서관 옆에 잘 활용하지 않았던 다목적실을 미술공간으로 꾸밀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정이 된 후 수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특화사업의 목적은 도서관 자체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며 미술공간과 기존 도서관의 분리가 아닌 한 공간으로 만들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미술특화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위기를 맞았고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지요.



▲ 공사 전 활용되지 않던 다목적실



▲ 공사 전 도서관 내부

당황스럽고 막막했고 난감했습니다. 공사 공간은 기존의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넓어졌고 예산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도서관과 다목적실이 별개였던 기존의 구조를 하나의 입구로 만들고, 벽을 뚫어 다목적실까지 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지원받은 금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공사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영망으로 할 수도 없었기에 이 공사를 해 줄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건축사무소와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늘이 도왔는지 인터넷 검색 도중 유난히 끌리던 창원의 한 건축사무소와 연락이 닿아, 결국 무사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면을 짜고, 견적서에 도장을 찍고, 한 달 가까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공사가 이어졌고, 매일 공사시간 내내 공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옆에서 귀찮게 하며 재료를 고르고 위치를 잡고 색을 고르며 그야말로 한땀



▲ 공사 후 생활미술도서관 공간으로 바뀐 다목적실의 모습

한땀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마실 것과 간식을 챙겨드리며 청소도 돕고 그렇게 공사를 하나하나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선택과 수정을 거치며 지금의 도서관의 모습을 갖춰 나갔습니다.

공사 후 전문가분들의 데스크를 옮기라는 컨설팅 내용은 어찌면 또 한번 위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활동과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1인 체제로 전환될 때를 위하여 입구의 데스크와 미술공간의 데스크를 하나의 데스크로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은 회의를 했고, 고민 끝에 데스크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로 자신이 일하는 작은도서관은 그 공간을 늘 이용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수용해야하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한 이야기 끝에 아니라는 판단이 설 때에는 밀고 나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은 도서관이 끝까지 안고 가야하겠지요.



▲ 공사 후 도서관의 모습



특화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오픈식 당일 이른 아침입니다. 팔판작은도서관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꽃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달간 수많은 이웃이 함께 종이접기를 했습니다. 오는 길과 계단에 함께 접은 색종이를 이틀 밤낮을 한땀 한땀 붙였습니다.



9월 2일 오픈식 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이웃의 손길이 모여 만들어진 색종이 작품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울고 웃으며 지나온 몇 개월이 떠올랐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접은 색종이가 모여 이렇게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한눈에 들어오니 그 순간 이미 저에게 팔판작은도서관의 특화사업은 성공이었습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소소한 미술작업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소통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특화였습니다. 그 생각이 현실이 되었다는 감격스러움과 뿌듯함이 그동안 노력의 대가로써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잘 지켜나가야겠구나. 할 수 있는 만큼 팔판작은도서관을 통해, 책과 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 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깊고 넓게 살아가는 모습을 서로 배워갈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작은도서관은 정말 가치 있고 멋진 곳일 수 있겠구나.

## 팔판작은도서관의 2018 년은 어떠하나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지켜나가고 계시지요. 특화사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 새해를 맞아 생활미술특화로서의 팔판을 어떻게 지속가능하도록 체계를 잡아나갈지 고민이 많습니다. 2018년을 돌아보며 정리를 하고, 앞으로 '생활미술특화도서관'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운영의 체계를 잡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따뜻하게 이용자를 만나고 도서관이 어떻게 하면 더 훈훈하고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사를 선뜻 맡아주신 건축사무소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은 크든 작든 의뢰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니다.”라고. 잘 된다고 일을 가리고 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세를 낮추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팔판작은도서관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웃을 만나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팔판작은도서관의 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아겠습니다. 특화 후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은 한결같이 참 좋아하시고 감탄하십니다. 카페 같으며 딱딱하지 않고 편안하고 참 예쁘다고 하십니다. 올 때마다 변화가 있어서 오늘은 가면 무엇이 변해있을까 기대를 하고 오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소문을 듣고 울산, 춘천, 광주, 진해 등 다른 지역의 도서관 관계자분들께서 견학을 오시기도 합니다. 더 많은 다양한 지역, 계층의 분들과 함께 온기를 나누고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써 가꾸어 놓은 공간이 빛을 잃지 않도록 여기저기 알리고 뛰어다니려 합니다. 적극적으로 후원을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도서관 분야의 활동들을 알아보고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위해 2017년 해왔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축제, 행사 등도 함께 참여하고, 다른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팔판작은도서관을 알리고, 도서관 안에서 머무는 작은 도서관이 아닌 마을과 함께하는 언제나 움직이는 팔판이 되려고 합니다.

**특화를 고민하는 다른 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실험과 특화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도서관의 지역적 특색이나 운영의 특성 등을 깊이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화지원사업은 작은도서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도서관 ‘운동’이라는 표현이 어색했고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도서관 활동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 일은 돈이 되지도 않고 단순한 봉사도 아닙니다. 왜 나는 작고, 큰 관심을 받지도 않고, 재정도 열악한 이곳에서 이려고 있는지 갈등을 겪게 합니다. 하지만 내 주변이 서로 어울려 따뜻할 수 있도록 온기를 전해보자는 생각,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더 훈훈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작은도서관 일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팔판의 특화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대선배님들과 작은도서관과 관계된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른 작은도서관과

도 함께 해주시겠지요. 같은 길을 가는 동료로 인정해주고 등대 역할을 하시며 함께 가겠지요. 특화지원은 더 넓은 세상으로 함께 자는 선배 작은도서관의 손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정도면 도전해 볼만 하겠지요?

**특화를 고민했던 팔판  
활동가들 스스로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하나에서 열까지 사람이 만듭니다.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작은도서관의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의 상처, 아픔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모두 잘 견뎌주었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 이렇게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편안한 ‘책과 사람, 예술이 만나는’ 팔판작은도서관으로 재탄생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향기가 솔솔 풍기는 팔판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특화를 위해 뜨겁게 함께했던 기억 하나 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언제 어디서 만나도 끌어안으며 반가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참 따뜻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